

## 한국도로교통협회와의 인연



### 지 자 약 력

- 한국도로교통협회  
ITS 담당직원

### 이 지 현

나는 인연이라는 것을 믿는다. 친구들과의 인연, 연인간의 인연, 사업상의 인연 등등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만나기 싫어도 어떻게든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잘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도로교통협회와 인연을 맺은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조금 넘어간다. 이 협회와 인연을 맺기전 나는 도로, 교통 등에 관한 것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나는 미국의 교통상황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교통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일 뿐, 이 계통에는 별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 내가 이 협회와 인연을 맺은 후부터는 잘 안 들던 교통방송도 귀기울여 듣게 되고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기도 유심히 살펴보는 등 도로, 교통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덕분에 ITS라는 것이 지능

형 첨단 교통 시스템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중요성 또한 인식하게 되었으며 선진국들의 ITS 추진 상황도 듣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이 첨단 교통 시스템 체제가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교통 연구기관, 그리고 도로교통협회 등의 단체 혹은 개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 개발 속에 오는 1998년에는 우리 나라의 서울에서 도로교통협회 주최로 ITS 세계대회가 개최된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매년 개최해 오던 ITS 세계대회의 유치권을 우리나라가 따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교통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건 의미에서 내년 세계대회에 대한 기대는 무척 크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과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다. 도로, 교통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까지 내가 보아온 분들 중 이 쪽 분야에서 연구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아니 그 모두가 남자 분들이었다. 내년 ITS 세계대회 또한 대부분이 남자들의 손에 의해 개최, 진행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다. 왜 나는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으며 일의 능률 또한 생기질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4일, 25일의 양일간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국

제 프로그램 위원회 준비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 ITS America라는 단체에서 회의 참석차 온 여자 분을 알게 되었고 비록 그 분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나도 남자들 못지 않게 내년 세계대회를 위하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또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등의 문제 또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맡고 있는 한국도로교통협회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본다. 내년 서울 ITS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빌며 나 또한 그 준비자의 하나로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한국도로교통협회와 나와의 인연이 끝까지 소중한 것으로 남길 바란다.